

이동국, 월드컵 포기할 수도

독일 '스포렉 스포츠 재활센터' 찾아
검사 결과 따라 재활·수술 결정키로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2006 독일 월드컵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축구대표팀 간판 골잡이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이 상황에 따라 월드컵 출전 꿈을 접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부상 치료차 12일 낮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한 이동국은 프랑크푸르트 '스포렉(Sporeg) 스포츠 재활센터'를 찾아 국내 검사 결과와 현지 의진진의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재활치료를 할 지, 수술을 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함께 출국한 에이전트 이영중 이반스포츠 사장은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10%만 있다 해도 재활치료를 하겠다는 이동국 본인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동국은 프로선수다. 앞으로 선수 생활을 생각해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월드컵을 포기하고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이동국은 부상 당시 정신적 충격이 많이 벗어났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이동국도 수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전했다.

운동선수는 재활치료를 할 경우 재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재 기량을 100% 되찾기도 힘들어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동국의 경우 월드컵 개막이 다가와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에서는 수술 대신 재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이 사장은 지난 5일 프로축구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이동국이 다치던 장면과 포항 세명기병원에서 두 차례 실시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를 담은 두 장의 CD를 갖고 출국했다.

이동국은 애초 현지시간으로 13일 오전 스포렉 재활센터를 찾아 라인하르트 괴벨 박사 등으로부터 소견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도착 직후인 12일 오후 바로 진찰을 받을 수도 있어 13일 중으로 는 재활 치료 및 수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 쪽으로 결정되면 독일 현지에서 할 계획이다.



■ 독일 '스포렉 센터'는 어떤 곳
선수 재활치료 세계적 명성
황선홍·고정운 등 치료받아

아드보카트호 원톱 공격수 이동국(27·포항 스틸러스)이 독일 월드컵축구 본선 출전의 희망을 안고 재활치료를 받게 될 독일 '스포렉(SPOREG) 센터'는 선수 재활 분야에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기관이다.

이동국은 12일 독일로 떠나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 오픈바흐에 있는 스포렉 센터에서 외래 환자로 치료를 받게 된다.

1976년 원장인 라인하르트 괴벨 박사와 디터 에리히 박사가 3년간 리서치와 현장 치료 경험을 축적해 창립한 이 센터는 황선홍(전남 드래곤즈 코치), 고정운(FC서울 코치) 등 과거 부상한 대표 선수들이 재활을 받았던 곳이다.

수원 삼성의 리하르트 프라트 피지컬 코치가 스포렉 출신이다. 2000년 이 곳을 다녀온 고정운 코치는 "이동국이 다친 무릎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2006 독일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한 축구국가대표팀 골잡이 이동국이 12일 부상 치료차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십자인대를 비롯해 발목, 허벅지 등 축구 선수들의 부상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재활센터"라며 "물리치료부터 훈련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월드컵까지 시간이 없는 이동국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렉은 의학훈련요법(MTT)으로 근육 강화와 순환기계 훈련, 보행훈련, 아쿠아 조깅 등 다양한 운동법을 채택하고 있고 20여명의 전문 물리치료사가 상주한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박지성 데뷔골은 자책골' 논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과외 엔진' 박지성(25)이 지난 2월5일(이하 한국 시간) 풀럼전에서 터뜨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 뒤늦게 자책골로 판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인터넷판(www.timesonline.co.uk)'과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http://home.skysports.com)'는 12일(이하 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득점 판정단의 발표를 인용해 박지성의 골이 풀럼 수비진에 서 있던 카를로스 보카네그라의 자책골로 판정됐다고 보도했다.

박지성의 골 뿐 만 아니라 에버튼의 레온 오스먼, 미들즈버러의 지미 플로이드 하셀

엣 '더 타임스 인터넷판' 등 보도
"프리미어리그 득점 판정단 번복"
공식통계에는 여전히 2골로 기록

바임크가 기록한 득점도 자책골로 인정됐다. 반대로 뉴캐슬 골키퍼 셰이 기븐의 자책골은 리버풀 스트라이커 피터 크라우치의 득점으로 추인됐다.

박지성은 당시 풀럼전에서 전반 6분 개리 네빌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우측간에서 오른발 슈트로 네트를 갈랐다. 박지성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엔터링이었으나, 슈팅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칩슛으로 골키퍼 키를 넘기려 했다"고 답했다.

박지성은 가법게 볼을 감아올렸는데 볼이 보카네그라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맞고 굴절돼 네트 오른쪽으로 쏘였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공식 통계를 집계하는 '액티브 스태츠(activ stats)'에는 박지성이 여전히 정규리그 2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액티브 스태츠에는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29경기에 출전해 1천750분을 소화하고 총 10개의 유효슈팅을 날려 2골을 터뜨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컵 준결승전 빌레펠트의 경기에서 차두리(맨 왼쪽) 등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이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차두리 풀타임 출전
프랑크푸르트, FA컵 결승행

차두리(26·프랑크푸르트)가 풀타임을 뛰면서 팀을 독일 FA컵(DFB 포칼) 결승에 올려 놓았다.

차두리는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프랑크푸르트 코메르츠방크 아레나에서 열린 아르미니아 빌레펠트와 대회 4강전에 선발 출전, 교체 없이 경기를 마쳤다.

프랑크푸르트는 경기 시작 16분만에 주전 골잡이 이오아니스 아마나티디스가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프랑크푸르트가 이 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건 VfL보름을 1-0으로 꺾고 4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1988년 이후 18년 만이다.

13일 열린 바이에른 뮌헨-상과울리겐 승자와 오는 30일 우승컵을 다투게 된다.

FIFA 작년 수익
1,573 억원 달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 한해 2억1천 400만 스위스프랑(한화 1천57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FIFA는 12일(이하 한국시간) 공개한 2005년 재정수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총수입이 8억7천400만 스위스프랑(6천422억 원), 총지출이 6억6천만 스위스프랑(4천849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익이 2억1천 400만 스위스프랑이며, 이는 2004년에 비해 5천600만 스위스프랑(411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FIFA는 수익증대가 주요 환율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FIFA는 향후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규모 확대에 대비해 잉여금을 기금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13일(목)
- ▲메이저리그<토론토-보스턴>(07 : 55-Xports), <휴스턴-샌프란시스코>(11 : 05-Xports)
 - ▲전국사격선수권(14 : 00-KBS2)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 : 50-SBS스포츠)
 -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결승 4차전 <KCC-모비스>(18 : 00-KBS2)
 - ▲프로야구 <한화-LG>(18 : 15-KBS SKY SPORTS), <현대-삼성>(18 : 30-MBC ESPN)
- 14일(금)
-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플로리다>(01 : 55-Xports)
 - ▲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1R)(05 : 00-SBS스포츠)

겨울의 음식 문화 **크나우트** 0821-372-9981-2

www.kjdsa.com

★공주도도탕 ★삼계탕 ★양방(축협소) ★보신탕

해나로통신 021-449-9000

가정통신망, 인터넷, IPTV, 유선방송, 디지털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홈쇼핑, IPTV, 유선방송, 디지털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PC정형업그레이드 이젠 알뜰

최저가, 최단시간, 최상의 서비스

010-1544-2285

파워컴 010-1544-2285

가정통신망, 인터넷, IPTV, 유선방송, 디지털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홈쇼핑, IPTV, 유선방송, 디지털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